

구례 노고단 케이블카 재추진 불교계 반발

구례군 4.5km 로프웨이 설치 위해 환경부에 신청서 제출 예정

구례 온천관광지에서 지리산 노고단까지 4.5km에 달하는 국내최장 케이블카 건설이 재추진돼 지역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에 따르면 지리산은 천지구인 산동면 좌사리에서 성삼재를 거쳐 노고단까지 국내 최장인 총 4.5km 길이의 로프웨이를 설치하기 위해 조만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와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9월 24일 밝혔다.

이에 2008년 구성된 구례군로프웨이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의)는 "지리산 온천지구와 노고단 지역을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로프웨이 설치에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 '범 주민 생명운동'에 돌입했다"고 환영의사

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구례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계는 "최근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 훼손 면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것이 자연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리산권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은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 현재 2km인 국립공원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허용기준이 '시행령안 제14조의2'에 따라 5km로 늘어나고 또 공원지구에 건립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도 '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에 따라 현행 9m에서 케이블카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높이인 15m로 상향 조정돼

경제성 등 제반여건이 좋아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지원과 관계자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구례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국립공원변경신청서는 정책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상사 화엄사 쌍계사 등이 참여한 지리산생명연대는 "우리나라 자연공원은(육지부 기준) 국토면적의 4.93%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공원은 생태보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몰린 반달기스곰, 산양 등의 마지막 남은 생활터전이다"며 "케이블카는 설치 공사를 할 때부터 나무들을 계속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녹지보존이 우선인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설치로 생태 훼손은 물론 지역공동체가 파괴된 사례가 있다"며 "우후죽순격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서는 지자체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광특구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환영하는 지자체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구례군이 환경부에 신청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10·27법난 명예회복 해법 모색해

조계종과 10·27심의회, 10월 9일 기념법회·사진전 등 개최

'10·27법난' 발생 29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해법들을 모색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회(위원장 원화)는 오는 10월 9일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법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법회와 학술 심포지움, 사진전이 마련된다.

기념법회에서 주최 측은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공로자에 대한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한다. 또 행사당일인 10월 9일부터 27일까지 법난과 관

련 사진과 당시 보도된 언론 보도내용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에 전시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학술심포지움은 '10·27법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10·27법난의 발생 배경과 과제(김광식 부천대 교수) △10.27 법난 피해현황(김관태 산림 컨설팅대표) △10.27법난 특별법의 의의와 명예회복 방안(최홍준 상지대학교 교수)등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총 9주제)는 책자로 발간해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10·27법난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공유하는 이 같은 행사를 통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27법난은 1980년 신군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내세워 불교계 정화라는 명목아래 특정 종교와 교단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국가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다. 2009년 출범한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회'는 위원장인 조계종 총무부장 원화 스님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교육권 건립'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 이다. 박선주 기자

여수박람회 공직자 종교편향 심각

'여수 북음엑스포' 등 수시로 기독교행사 열려

2012년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정부의 엄중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운영책임자 이경우 지원과장은 9월 10일 한 기독교인론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는 하나님의 은혜"라며 "여수가 성자의 도시로 전 세계인에 각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여수 기독교계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북음 전파의 장으로 만들고자 '여수 북음엑스포 대회'를 2008년 7월 순천제일교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오현섭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이성용 광야시장, 서갑원, 주승용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참석해 종교종립 의무 훼손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8년 8월 22일 오현섭 여수시장은 기독교인론에 '여수세계박람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북음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기고하는 등 종교편향 물의를 일으켜 여수불교계에

공식사과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종교편향 행위 이면에 처벌규정이 없는 공무원법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공무원 종교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정상식, 이하 중공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등과 협의를 거쳐 '공직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18회에 걸쳐 실시했다.

특강은 정상식 원장 부임이후 중공교육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교화합 교육'의 일환으로, 조계종 총무부장 원화 스님(지혜롭게 사는 길), 가톨릭 미래사목연구소장 차동영 신부(무지개 원리) 등 종교지도자 강연이 진행돼 공직자들의 종교 이해 폭을 넓혔다.

중공교육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종교 차별 예방을 위한 특강을 수시로 실시해 공평무사한 직무수행의 초석을 다지는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비구·비구니 불평등조항 고쳐야

불교여성개발원 '성 인지적 정책 제안 토론회'

살아 숨 쉬는 모든 존재들의 생명 가치는 부처님이나 미물이나 같다는 평등사상은 2500여 년간 불교가 존속될 수 있었던 근본 배경이 됐다. 그럼에도 불교 내에는 율법과 종현종법이라는 명목하게 오랜 기간 비구·비구니스님의 불평등 조항이 있다.

이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과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9월 22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불교 성(性) 인지적 정책 제안'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열린 토론회는 불교계의 성 차별적 상황 극복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제안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불교계 성차별문화 개혁 및 의식화 운동 △중현종법 개정 추진 △여성 불자들의 정책수호를 위한 정진 △선거인단에

비구니스님 할당제 추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유정길 정토회 법사는 "양성평등은 상대가 가진 파이를 뺏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지녀야 할 것, 정당히 지닐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며 "불교계의 양성평등 구축이야말로 불교문화의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 교문은 "조계종 종법 제10조에는 '교구본사사직은 제6조의 추천당시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인 비구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2008년 기준 전국 재적 승려 1만3860명 중 비구스님 5413명, 비구니스님이 5331명 인 것을 볼 때 선거인단에서 비구니스님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비례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비구니스님의 선거참여권을 주장했다.

박선주 기자



'성 인지적 정책제안 토론회'서 유정길 정토회 법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에서 7대 종단 대표가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다.

세계 평화의 날 기념 '2009년 세계 평화의 날 기념식'이 9월 21일 오전 12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유엔세계평화의날 한국조직위원회(KOCUN-IDP) 공동 주최로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열렸다.

'2009년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는 7대 종단 대표자들의 '평화를 위한기도', 성직자들과 일반시민들의 평화를 위한 염원이 담긴 '평화나무 메시지 달기', '평화의 사진전', '평화의 문' 등으로 마련됐다.

개식사에서 김성곤 IPCR 상임이사는 "평화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총을 들고 전쟁을 하고 있다"며 "평화는 우리 개인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

했다.

7대 종단 성직자들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 낭독에서 재경 스님(불교)은 "인간의 자연 파괴는 결국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며 "우리 종교인들은 자연환경의 회복과 인간과 조화로 운 삶을 위해 기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캠페인 메시지(WMD-We Must Disarm : 우리는 군축해야 한다)가 비디오로 방영됐다.

반기문 총장은 "세계평화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폭력이 중단되는 날이다"며 "평화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핵군축 문제에 대해 새로 맺어진 조약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이회창 총재 급식봉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9월 24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을)을 찾아 '어르신 급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살피는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총재는 복지관을 찾은 300여명 어르신의 증식을 손수 배식하는 한편, 복지관의 시설들을 돌아보며 관장 스님과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급식봉사에는 이홍주 최고위원, 김낙상 사무총장 등 당직자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나은 기자

금강사 장학금 전달

14년간 학인스님과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서울 금강사(주지 분각)가 9월 13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금강사는 승가대 학인스님, 대학생, 청소년, '보리방과후교실' 어린이들과 금화사 학생 등 26명에 화엄장학회와 오향장학회에서 마련한 장학금 1100만원을 전달했다.

화엄장학회는 현재까지 30회의 전달식을 가졌고 1억8000여 만 원을 전달해왔다. 이나은 기자

담 화 문

- 제33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종단은 부처님의 가피력과 선대조사들의 치열한 수행정진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대중 수행공동체를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특히 제32대 집행부 임기 4년 동안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이라는 모토 아래 종단안정과 화합, 사회적 위상 강화에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안으로는 결계와 포살 제도의 시행 등으로 수행종가의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밖으로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와 상생의 사회적 화두를 제시하여 한국불교 대표 종단으로서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부대중은 한국불교 역사상 최대의 인원이 모여 범불교대회에 엄숙하고 장엄하게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우리사회는 종단의 각종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화합과 원용이라는 승가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여법한 선거를 치러내는 것은 우리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더욱 고양시킬 것입니다. 국민과 불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만약, 갈등과 반목, 부정선거 등 비불교적인 승가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한국불교의 위상추락은 물론 국민들과 불자대중의 외면을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10월 22일 치러지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는 우리 종단의 향후 백년, 나아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 할 것입니다. 현 종단 집행부는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급번 총무원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지는 금권, 비방,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태를 다하여 끝까지 확인해서 엄벌할 것입니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재연되고 있는 익명의 비방성 투서는 해종행위로 규정하여 종단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반드시 엄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종단의 행적수반이자 대표, 우리사회의 종교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가 종도들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성원 속에 회향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현 집행부의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회향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선거는 오늘의 성과를 살리고 내일의 종단이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종단이 역사에 빛나는 승가공동체, 사부대중 공동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3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